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8호 【루계 제24816호】 주체104(2015)년 2월 7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되여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륙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장인 해군소장 진철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칠동지와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주체적인 국방공업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가장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로동계급은 신형반함선로케트를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신형반함선로케트를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의 해병들과 국방과학기술자들, 군수로동계급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반함선로케트의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를 보아주시였다.

동해함대장의 사격구령이 떨어지자 로케트정에서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초정밀화된 반함선로케트가 발사되였다.

지능화된 반함선로케트는 안전하게 비행한 후 《적》함선을 정확히 탐색, 식별하여 명중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로케트정의 전투적성능과 반함선로케트의 명중성이 설계된 전술기술적제원에 도달하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다.

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는 주체적인 국방력강화발전에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초정밀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개발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신형반함선로케트가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됨에 따라 해군의 령해방위에서는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가 개발생산하고 있는 각종 로케트들이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만족해하시면서 이번에 적함선집단을 먼거리에서 마음먹은대로 타격할수 있는 신형반함선로케트가 개발완성된것은 무장장비들을 최첨단수준에서 지능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이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된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의 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제미친개무리들과 그 졸개들,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아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정규무력건설의 나날에(3)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인민의 군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내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마다에 무적필승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에나 백두산혼련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필승의 담력과 배짱으로 한껏 달아오른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멸적의 투지가 용솟음치고있다.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슬하에서 다지고다져온 무적의 총대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일념으로 충만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장한것인가.

일당백으로 다져지고 굳세여진 씩씩하고 름름한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속에는 해방의 첫 기슭에서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참다운 인민의 군대,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혁명군대이며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인민의 참다운 군대입니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정규무력건설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당시 정규무력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무장한 지휘관들이 매우 부족한것이였다.

자체의 정규적인 민족군대가 없었던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군사전문가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면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규군을 건설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투사들을 골간으로, 자체의 힘으로 군사간부문제를 풀기로 결심하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며 민족군대, 현대적정규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간부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사정치간부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는 평양학원개원식이 성대히 열린 주체35(1946)년 2월 23일, 열광적인 환호속에 **《평양학원개원식을 축하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새 조국건설에서 민족간부양성의 필요성과 평양학원창설의 목적, 평양학원을 점차 늘여 각 군종, 병종부문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들과 모든 학생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투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혁명군대의 군사, 정치간부로 되기 위하여서는 정치와 군사를 다같이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며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야 한다고, 군사훈련에서는 현대적인 전법과 사격술을 련마하며 특히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뜻깊은 그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평양학원의 명예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해방후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자주 학원에 나오시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학습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어느날 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시고 그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에게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는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일일이 물어보시였다.

아무 불편도 없다고 대답올리는 학생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학생이 일제놈들에게서 빼앗은 큰 군화를 신은것을 보시고 동무는 그걸 신고다니자니 신발이 몇근 잘되겠소라고 하시며 웃으시였다.

무겁지 않다고 대답올리는 학생을 품에 껴안으신채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가슴아프신 심정을 누르시며 좀 참아야 하오, 지금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참아야 하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토스레옷과 짚신을 벗어던진지 얼마 되지 않던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딸들을 정규무력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어엿한 혁명가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위대한 어버이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어제날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은 혁명을 알고 군사를 알며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나가는 정규무력건설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평양학원 제1기 졸업식에 참가한 졸업생들은 불과 수백명밖에 안되였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키우신 그 한명한명이 정규무력건설의 얼마나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던가.

이들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제침략자들을 무리로 함정골에 처넣었다.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마다에서 련승을 떨쳤다는 미제의 장군들을 차례로 파멸시킨 영웅들이 바로 소박한 나무책상에서 백두령장의 전법과 전술을 배운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였다는것을 력사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무력건설이 폭넓게 벌어짐에 따라 평양학원 하나만으로써는 요구되는 각 군종, 병종의 군사정치간부를 다 키워낼수 없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주체35(1946)년 7월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새로운 군사교육양성체계가 세워지고 군사교육에서 주체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군대안의 간부양성기지가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되였다.

보안간부훈련소, 수상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학교들을 세우도록 하시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각 군종과 전문병부문의 지휘성원들과 기술일군들을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는 참으로 위대하다.

오늘도 우리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진 잊지 못할 주체37(1948)년 2월의 열병식장광경이 생생히 떠오른다.

총창을 비껴든 병사들의 억센 모습, 허연 입김을 날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열병대오…

백두의 풀물오른 혁명의 군복을 떨쳐입고 긍지드높이 보폭을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가는 새 조선의 아들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안광에는 얼마나 뜨거운것이 흘렀던가.

이날 인민군부대들의 열병대오를 사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계승자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인민의 군대,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외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의 군대이라고 선언하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의 혁명적정규무력의 탄생!

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몸소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주체적인 건군사상과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였다.

본사기자 강철남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군대

새 조선의 항공대

주체34(1945)년 11월 29일은 새 조선의 항공대가 창설된 날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신의주항공협회를 찾으시였다.

당시 신의주시에는 반동놈들의 꾀임에 넘어간 청년학생들의 무모한 폭동으로 하여 긴장한 사태가 조성되여있었다.

주체의 항공무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복잡한 정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침식사도 미루신채 현지로 향하시였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이를 승용차에 모시지 못하는것을 두고 죄송스러워하는 일군들에게 화물자동차면 뭐라는가고 하시며 길을 재촉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지금도 귀기울이느라면 여러 훈련실을 돌아보신 후 종합강의실에서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민족적정규군대건설에서 항공대의 창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조선은 오늘까지 자기의 항공대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여야 한다. …

진정 이날과 더불어 우리의 자랑찬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빛나는 력사가 시작되였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오늘이 있는것 아닌가.

평양학원을 창설하시여

평양학원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혁명사적기념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인 주체34(1945)년 11월 17일 험한 진펄길을 헤치시여 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신 잊지 못할 사연이 새겨져있다.

건국의 바쁘신 속에서도 정규군간부양성의 모체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의 발자취를 아로새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먼길을 오신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건물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병실과 강의실, 식당으로 쓸 건물을 친히 정해주시고 험한 길을 걸으시여 전술훈련장과 사격장, 체육훈련장자리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신 우리 수령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학원의 터전을 정해주었으니 이제 학원의 이름까지 달아주면 마음이 놓이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조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세우는 학원인것만큼 평양의 이름을 따서 **《평양학원》**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평양학원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였기에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건설에서 투사들 한사람한사람이 백사람, 천사람맞잡이로 귀중하였지만 김책, 안길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몸소 학원에 파견하신것이였다.

평양학원은 정규무력건설에 이바지할 첫 정치군사간부양성기관이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정규적군사교육기관이였다.

자위적국방공업의 주추돌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을 하루 앞둔 10월 9일 강선을 찾으시고 로동계급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사실에 대하여 잊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천벌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국방공업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며 자체의 힘으로 병기공장을 건설할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기관단총을 분해하여 한장한장 도면을 그리고 불에 달군 소재를 망치로 두드리고 줄칼로 쓸며 짧은 기간에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시제품을 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주체37(1948)년 12월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병기공업의 첫 제품인 기관단총으로 몸소 시험사격을 하시였으며 병기공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강력한 국방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앞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최신식무기들을 다 생산하는 전문직장을 새로 내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어느날 우리 나라 군수공업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관단총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 빈터우에서 창설된 우리의 병기공업, 그것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강력한 밑천이였으며 자립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운 주추돌이였다.

본사기자 백영미

새 조선의 건군사와 더불어 잊지 못할 력사적인 화폭들

첫 열병식에 들고나갔던 군기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첫 기관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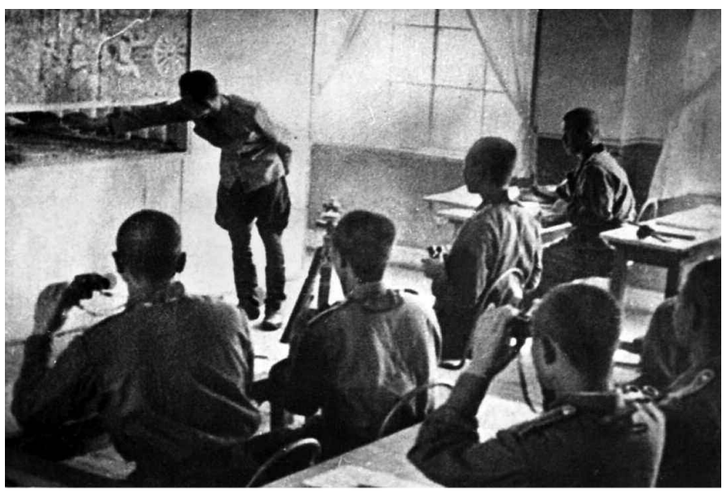
군인들의 군복, 모자, 혁띠,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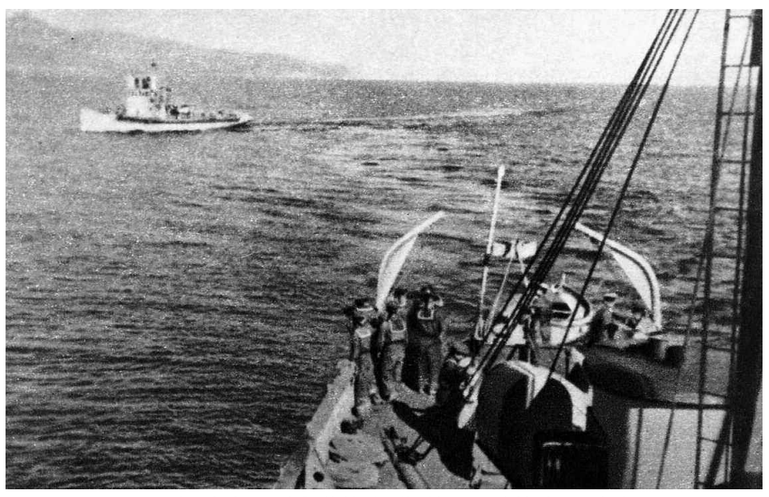
중앙보안간부학교청사

기계화부대 군기수여식 진행

포사격훈련을 하는 군인들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전술훈련을 진행하고있는 인민군용사들


군사상학을 하는 학생들


조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키는 조선인민군 해병들

조선인민군 항공부대

이런 경영전략이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창조한다

대동강맥주공장 일군들의 과학적인 품질관리경험

대동강맥주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한 제품이다.

제품의 질평가에서 인민의 수요만큼 가장 정확한 척도는 없다.

사시절 수도의 곳곳에 있는 대동강맥주집들이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광경은 이 맥주에 대한 인민의 말없는 찬사라고 할수 있다.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인정하는 대동강맥주, 이것은 곧 기업활동의 성공을 의미한다. 하다면 이곳 일군들은 어떤 경영전략으로 오늘의 높이에 올라섰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며칠전 대동강맥주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인기제품, 명실공히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창조한 대동강맥주공장 일군들의 경영전략에 주목을 돌리고 공장의 품질관리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품질담보는 철저한 과학성

흔히 맥주생산공정은 미생물공업의 집합체라고 한다. 균의 배양과 그를 리용한 원료의 분해로부터 시작되는 생산과정은 전공정이 미생물관리과정이다. 동시에 맥주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잡균을 비롯한 여러 인자들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적인 생산공정 그자체만으로는 높은 품질을 담보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공장에 보장되는 주원료가 달라지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원료조건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동강맥주의 맛이 떨어지고있는 원인은 어떤 원료를 쓰는가에도 있겠지만 기본은 맥주의 맛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지 않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공장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즉시 새로운 눈으로 공장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실태를 분석해보았다. 허점이 많았다. 품질담보의 첫 공정인 원료의 접수와 보관관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맥주생산의 주원료가 보리와 호프인 공장에서는 한해 수요량을 수확계절에 받아 보관해놓고 1년동안 쓰고있었다. 그런데 원료의 입고단계에서부터 똑똑한 기준이 없이 실어다주는 원료를 량적으로 계량하여 접수하였고 보관관리에도 과학적인 품질관리기준이 바로서있지 않았다.

매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지도에도 빈구석이 많았다. 공장에 그쯘한 기술력량의 대부분이 참모부에 배치되여있는 반면에 생산현장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자들이 적었다. 결과 기술지도가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고있었다.

기술일군들은 생산자들의 기술지표관리문제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바치고있었다. 생산자들은 또 그들대로 기술관리를 기술일군들의 몫으로 여기면서 어떤 정황이 생기면 기술자들에게 의거하였다. 결국 매 생산공정에서의 품질관리가 목적지향성이 없이 소방대식으로 뒤따라가면서 대책을 세우는것으로 진행되였고 제품의 질에서도 파동이 많았던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품질을 담보할수 없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패권을 가진 제품을 기대할수 없다는 결론을 찾은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달라붙었다.

이렇게 생겨난것이 품질관리위주의 사업체계였다.

품질관리를 전임으로 맡아보는 품질관리과가 새로 나오고 기술과의 많은 력량이 현장에 배속되였다. 품질관리과에서는 세계적인 맥주발전추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원료의 접수로부터 제품이 나갈 때까지의 전반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졌다. 품질관리위주의 사업체계가 세워진 후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관리가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우선 원료의 품질관리부터가 과학적이였다.

일반적으로 원료구입은 자재인수원들이 하는 일로 여기고있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는 품질관리과의 성원들이 직접 원료산지에 나가 품질을 따져가면서 접수하고있다.

호프접수와 그 관리만 보아도 그렇다.

호프는 맥주에서 쓴맛과 독특한 향기를 내면서도 미생물억제 등 여러가지 작용을 하기때문에 맥주생산에서 중요한 원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런데 호프관리를 잘못하면 산화된 호프가 맥주에 불쾌한 잡맛을 내게 한다.

호프를 수확할 때부터 품질관리과 성원들이 현지의 밭에서 병색을 띠는 호프를 엄격히 식별하고 마지막건조까지 공학적요구대로 기술지도를 하고있다.

엄격한 규정에 기초하여 원료를 접수한 후에도 그 보관관리에 들이는 품 또한 간단치 않다.

천수백리나 떨어진 산지에서 선별해온 호프를 분쇄하여 알호프로 만든 다음 알루미니움박지에 넣고 진공포장하여 일정한 온도가 보장된 창고에 보관하고있다. 그야말로 원료를 제품화하여 관리하고있다. 또한 월에 1차씩 창고에서 선택적으로 알호프봉지를 개봉하여 품질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기온도가 높아지는 6~9월에 적합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호프만이 아니라 보리를 비롯한 모든 원료의 품질관리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전반생산공정의 기술관리도 품질위주로 진행된다.

맥주는 균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품질이 크게 좌우되며 지어 생산과 포장과정에 공기나 물과 접촉하여도 신맛이나 잡맛이 나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것은 무수히 뻗어간 관로와 탕크들뿐인 맥주생산공정에서 미생물관리를 잘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효모배양과정에 잡균이 들어갈수 있는 요소가 많은 조건에서 그를 막기 위한 과학적인 미생물관리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순환식청소소독체계(CIP)를 도입하였다. 한주기 생산이 끝나면 맥주와 접촉한 관로와 탕크들 지어 시료채취구에 이르기까지 세척살균하는것이 제도화되였다. 결과 지금까지 잡균에 의한 맛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맥주가 미량의 공기와도 접촉하면 그 맛이 속속 변하기때문에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료해분석하는 과정에 찾아낸 11개소의 산소침입경로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중간공정들에서 생산물의 이송시 탕크들의 등압을 조절하는데도 철저히 순도높은 질소나 탄산가스를 리용하고있다.

이렇게 생산의 전반공정에서 기술관리가 과학화되고 품질관리과의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지난 시기 여러가지 원인으로 기술지표에서 변동이 생길 때마다 뒤따라가며 바로잡는 편향이 완전히 없어졌다.

분석을 떠난 제품의 질을 론할수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수도 없다는것이 이곳 일군들의 확고한 주견이다. 하기에 아무리 많은 자금이 드는 발전된 분석설비라도 일군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해결하였으며 항상 새로운 분석설비들의 출현을 주시하고있다.

이런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토대로 하여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에 따라 1번부터 7번까지의 맥주품종을 개발해냈고 오늘은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오늘날 맥주공업분야에서 연구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풍미안정성보장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맥주들을 따라앞서자, 이것이 이들의 당면목표이다.

맥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맛과 향기가 점차적으로 변하는데 생산했을 때의 맛과 향기 즉 신선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하는것이 풍미안정성이다.

품질관리과 기술자들은 풍미안정성지표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맥주들을 압도할 야심만만한 목표를 내세웠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준비가 이미 끝났으며 일부 설비들에 대한 제작도 완성하였다.

제품의 질변동으로 고충을 겪던 8년전에 일군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전개한 과학적인 품질관리위주의 경영활동은 제품의 질을 크게 개선하여 인민들속에서 우리의 대동강맥주가 제일이라는 호평을 낳게 하였다.

품질관리의 주인은 생산자대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품질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생산공정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품질을 담보하는 기술관리체계가 과학적으로 확립되였다고 하여도 생산의 직접적참가자이며 주인인 생산자들이 품질의식수준이 낮고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현실에서 은을 낼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생산자대중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은것은 본받을만 한 경험이다.

품질관리에서도 기본은 생산자대중이라는 일군들의 확고한 립장이 로동자들의 사고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관리사업을 기술자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지휘에 따라서만 움직이던 생산자들이 기술관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군들은 공장의 기구를 혁신적으로 조절하고 참모부의 기술력량을 현장에 배속시키면서 직장, 작업반마다에 기초적인 분석설비와 분석기구들도 갖추어주었다. 그 다음 맡은 공정의 기술지표는 전적으로 직장, 작업반에서 책임지도록 하였다.

매 공정에 품질기준을 보다 높이 정해주고 엄격한 내부품질규정을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조치는 생산자대중의 품질관리의식을 높여주었고 기술향상을 위한 열풍을 안아왔다.

직장, 작업반들에서 매주 진행하는 기술학습도 류다르다. 기술지표가 제일 복잡한 맥주직장만 보아도 기술학습을 강의로만 그치지 않고있다. 즉석에서 꼭꼭 시험을 치는것을 정상화하고 대중앞에서 매 사람의 실력을 공개하여 평가하고있다.

하기에 이곳 현장에 가보면 생산자들이 항상 손에 맥주공학을 비롯한 참고서를 들고다닌다. 기술적으로 더 깊이 알고싶은 문제는 기술자들이나 분석실의 분석공들에게 수시로 물어보고 여러가지 책까지 요구하는데 오히려 기술자들이 부단히 자기 실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따라서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생산실천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실례로 발효공정인 경우 생산자들은 발효도가 8시간동안에 몇% 올랐다든가 또는 기준대로 오르지 않았다는것을 기술지표의 수치를 놓고 환히 꿰들고있으며 그 원인을 효모가 기준보다 적게 들어갔거나 혹은 발효온도에서 변동이 생겼다는 등으로 정확히 해명하고있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맡은 공정에 얼마나 깊이 정통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생산자들이 품질관리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결과 공정간 인계인수도 질인계인수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양조공정에서 당화도중 갑자기 어떤 원인으로 길금물의 폐하가 기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반드시 첨가제로 정확히 맞춘 다음에야 발효공정으로 넘긴다. 기술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원료나 중간제품은 절대로 인계인수할수 없다는것이 공장안에 세워진 엄격한 준칙이다.

이 과정에 생산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들 못지 않게 그 어떤 정황도 능동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고있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산자들의 품질관리의식이 높아질수록 매 사람들의 품질관리능력평가에 응당한 주목을 돌렸다. 평가사업을 잘해야 세계와의 질경쟁이 치렬한 오늘의 시대에 생산자대중을 과학기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었다. 또한 누구에게나 기술을 모르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자각을 강하게 심어줄수 있었다.

요점은 기술관리에 대한 평가사업자체가 과학적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일군들은 이 문제의 해결방도를 모색하던 과정에 우리 나라의 우수한 연구집단이 개발한 공정능력지수평가프로그람을 도입하기로 결심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맡은 공정에서 기술지표관리내용을 매일 공정일지에 기록하는데 한달이 되면 품질관리과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표준치와의 편차를 계산하고 총값, 편차률을 프로그람에 입력시킨다. 그러면 작업반마다 품질관리능력이 수자로 나타난다. 작업반에서는 그 수자에 기초하여 매 사람에 대한 평가점수를 주고있다.

누구는 0.7이고 누구는 0.3이라는 식으로 통보되기 시작하자 품질관리에 대한 경쟁의식이 보다 활발해졌다.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만 높아진것이 아니다. 기술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현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련속 나오게 되였다.

품질관리과의 기술자모두가 학위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공장의 품질관리수준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공장품질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맥주들과의 대비분석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경쟁력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이것이 바로 일군들이 주도해온 공장발전의 기본전략이였다. 강력한 인적자원으로 새 기술창조능력을 키우고 세계와의 경쟁을 치렬하게 벌려나가자, 이런 뚜렷한 전략으로 품질관리를 과학화하고 생산자대중을 품질관리의 주인으로 이끌어온 공장의 경영활동이 오늘날 그 은을 내고있는것이다.

* *

대동강맥주는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의 VOA방송, 영국잡지 《에코노미스트》, 로이터통신 등이 대동강맥주의 독특한 맛에 대해 널리 선전하였다. 어느 한 출판물에는 《이럴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물리화학 및 오감분석까지 한 결과 대동강맥주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였다.

자본주의세계에 던져진 맥주폭탄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들도 대동강맥주에 단연 엄지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세계와의 경쟁력을 가지고 인민의 절대적인 호평을 받고있는 대동강맥주를 놓고 소비품생산을 책임진 모든 단위 일군들은 새기고 또 새겨야 할것이다.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 단위를 발전시키고 하나의 제품을 내놓아도 인민앞에, 조국앞에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를.

대동강맥주공장 일군들처럼 자기 단위의 실정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때 인민이 좋아하는 우수한 제품을 내놓을수 있고 세계적인 우리의것을 창조할수 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지닌 책임과 임무를 자각하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9월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토양개량제치기를 앞당긴 사연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국가자원개발성돌격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국가자원개발성돌격대에서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운반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초급일군들은 급히 돌격대지휘부로 모이라는 련락을 받았다. 그들은 제나름의 추측을 앞세우며 지휘부에 도착하였다.

이윽고 초급일군들이 다 모이자 돌격대대장 리정남동무는 다음날부터 일부 력량을 동원하여 자연풀판조성구역에 대한 소석회치기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이 사업은 봄철에 하기로 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영문을 몰라 머리를 기웃거리는 그들에게 리정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좋은 토양개량제라도 그것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리용할 때라야 응당한 결실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시간적으로 놓고보아도 지금부터 소석회치기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장 합리적인 방도의 하나는 소석회를 물에 풀어 리용하는것이다. 이것을 여러가지 작업공정이 겹치는 봄철에 수행하자면 로력문제가 걸릴뿐아니라 경사지포전으로 물을 운반하느라 많은 품이 들게 된다. 더우기 얼마전에 성책임일군들이 적극 발벗고나서서 마련해준 100여t의 소석회를 봄철까지 보관하느라면 그 성분이 변하기때문에 품질이 낮아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어디에나 쌓여있는 지금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자연풀판조성구역에 하루빨리 소석회를 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눈석임물에 풀린 소석회가 땅속으로 골고루 스며들어 더 좋은 토지개량효과를 거둘수 있다. …

그러면서 지난해의 경우를 실례들었다. 지난해 봄철에 돌격대에서는 많은 량의 소석회를 리용하여 수백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였었다. 그런데 먹이풀씨를 뿌린 다음 한달정도 지나 토양의 페하를 측정해보니 처음보다 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몇달이 썩 지난 후에야 일정하게나마 변화가 있었다. 결국 먹이풀의 초기생육에 필요한 토양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그때를 돌이켜본 초급일군들은 새로운 결의를 안고 돌아가는 즉시 긴급대책을 세웠다.

다음날부터 유기질비료생산 및 운반과 함께 소석회치기전투가 동시에 활발히 진행되였다. 김정남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일군들이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앞채를 메고 대오의 기수가 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할 일념밑에 전투장으로 달려나간 이들은 남먼저 일손을 잡고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뿐만아니라 이미 확보된 100여t의 소석회를 짧은 기간에 자연풀판조성구역으로 운반하여 전면적에 골고루 뿌리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도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유기질비료생산과 운반은 물론 소석회치기전투실적을 날마다 높여나갔다.

본사기자 김성일

설비, 부속품은 념려말라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차를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못쓰게 되여 세워놓은 탄차들도 빨리 수리하여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탄광들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탄차와 배수관, 공기배관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전차, 탄차바퀴와 벨트콘베아부속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공장참모부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감속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공장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무릎을 마주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함께 토론하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그 과정에 새 기술혁신안들이 적극 도입되여 생산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탄차직장의 기술자들은 탄광들에 나가 탄차리용에서 좋은 점과 부족점은 무엇인가를 제때에 알아보고 탄부들이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는 탄차들을 만들어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리고 용접판직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질좋은 배수관, 공기배관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주강직장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차, 탄차바퀴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공장종업원들의 안해들이 떨쳐나 많은 파철을 모아 보내줌으로써 전차, 탄차바퀴를 생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석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탄광들에 더 많은 설비와 부속품들을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새 제품개발성과와 기술력량편성

류원신발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1월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시였다.

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최근년간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새 제품, 공장을 상징하는 독점지표개발에 힘을 넣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지난해에 축구화를 비롯한 60종의 새 제품을 개발생산하였는데 그에 대한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의 평이 좋다.

우리는 공장의 새 제품개발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료해하는 과정에 일군들로부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술력량편성에 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결론을 받아안은 지배인 김윤실, 기사장 임의웅동무를 비롯한 공장책임일군들은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 미감에 맞는 신발개발을 전문적으로 맡아할 새 제품개발실을 새로 내왔다.

지난 시기 이 사업을 맡아보던 기술준비실에서는 현행생산에 많은 품을 넣어야 하였으므로 공장적인 새 제품개발에서 응당한 성과가 이룩되지 못했던것이다. 능력있는 기술일군들과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새 제품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력량을 꾸리고 필요한 조건들도 구비해주었다. 결과 그해에 공장에서는 40종의 새 제품을 개발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나날 축구화를 비롯한 7종의 운동신들도 시험적으로 제작하게 되였다.

새 제품개발의 성공여부는 수요자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공장일군들은 새로 개발한 운동신들에 대한 체육선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전문체육단들에 나가 해당 종목의 선수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일정한 시일이 흐른 다음 그들을 만나 의견을 종합하였다. 그러나 공장일군들의 기대와 달리 받은 의견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형태적으로나 완성되였지 실지 해당 종목의 운동을 하는데는 이모저모로 불편하다는것이였다.

무거운 마음안고 돌아온 일군들은 지난 1년간의 운동신개발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개발실성원들은 일반적인 신발들을 개발하던것과 마찬가지로 한사람이 한종의 운동신을 개발하는것을 목표로 내걸고 연구제작사업을 해왔다. 해당 운동종목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다나니 자연히 종목별로 다른 나라의것의 형태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는데 치우치게 되였다. 해당 종목마다 운동신의 창과 갑피, 접착제 등에 대한 요구가 다른 조건에서 한사람이 그 모든것을 다 안고 짧은 기간에 해결한다는것이 욕망처럼 될수가 없었다. 개발력량을 꾸려놓은데 만족하며 구체적문제들에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들의 천편일률적인 일본새가 낳은 응당한 후과였던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책임일군들이 찾게 되는 교훈이 있었다.

기술적요구가 높은 운동신개발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는것이였다.

국제적기준에 맞는 우리의 운동신을 개발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 비추어 자신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본 지배인, 기사장은 개발실의 력량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꾸리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지난해 3월 신발창과 갑피, 접착제, 신골, 재료등 신발의 요소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기능을 가진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운동신개발을 위한 기술력량이 재편성되였다. 일군들은 당면하여 우리의 축구화개발을 1차목표로 내걸고 각자가 자기 부분에서 부족점들을 퇴치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운동신개발을 위한 기술공정확립을 위해 콤퓨터에 의한 설계공정을 꾸리고 11종에 20여대의 설비들도 새롭게 마련해주었다. 일군들은 수시로 축구화개발정형을 알아보며 철두철미 수요자의 립장에서 모든 요소들을 완성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그 이후의 새 제품개발과정은 이곳 일군들의 작전이 옳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었다.

신발의 각 부분에 조예가 깊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개발력량에 망라되여 명백한 목표점령을 위해 사색과 실천을 합쳐가니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신발의 각 부분을 맡은 성원들은 축구선수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신발창의 뽕알높이, 창과 갑피의 접착세기, 안감의 당김힘보장 등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모든 부분이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연구과제를 완성하려면 어차피 다른 분야를 맡은 담당자와도 호상 의견을 나누어야 하였다. 이 과정은 모든 개발력량성원들에게 축구화에 대한 보다 깊은 리해를 주었으며 서로의 부족점을 보충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도 되였다.

공장일군들은 이렇게 제작한 축구화가 나올 때면 개발실의 동무들이 그것을 가지고 체육단들에 나가 선수들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였다. 그 의견을 종합하여 책임일군들이 직접 개발실성원들과 진지하게 마주앉아 또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나갔다. 우리 선수들의 체질에 맞게 신골을 과학화하고 국내산원료를 기본으로 하여 신발재질문제를 푼것을 비롯하여 3차에 걸치는 이런 단계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장에서는 드디여 새 축구화를 개발해내였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화를 리용하고있는 어느 한 전문체육단 축구선수들은 우리의것이 다른 나라의것에 못지 않다고 하며 훈련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한다.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 공장일군들의 사업은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목표를 높이 정하고 자체의 기술적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해나간다면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자기 공장제품,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새 제품을 더 많이 내놓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시) 2월광장의 봄우뢰

문 용 철

안도의 밀림을 떠나
혈전의 광야
불의 바다를 헤쳐
총대의 대오는 굽이쳐왔어라
2월의 이 광장으로

위대한 력사의 시각을 기다려
엄숙히 정렬한 열병대오
휘날리는 군기아래
포신을 번쩍이는 포병종대들
더운 김을 내뿜는 기마종대의 군마들

백두전장의 초연이 스민
외투자락 날리시며
서리발 눈부신 총검의 파도우에
근엄한 시선을 얹으시는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

장군의 눈가에
첩첩 다가서는 피어린 산발들
그이 가슴속에 일어번지는
천고밀림의 눈보라

백두전장에 폭풍치던 칼바람이여

이름모를 산야에 쓰러졌던
빨찌산전우들도
장군의 그 품에 달려와 안기는가
백설의 광야를 물들이던 그 선혈이 스민
군기들의 기폭 불길처럼 퍼득이여라

이 강토를 서리서리 휘감았던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던지고
피젖은 망국의 력사를 끝장낸 총대
빛나는 강국의 력사를 떨쳐갈
백두산총대여

삼천만이 눈길모아 우러르는
열병광장의 연단에
백두의 산악처럼
거연히 서신 김일성장군

그 품에서 빨찌산의 피줄기
백승의 혈통을 이으며
무적필승의 대오로 자라난
못 잊을 전우들을 품에 안으시는듯
이제라도 총성을 높이 울리면
그들모두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달려올것만 같으신듯

빨찌산시절
눈무지를 전호삼아 원쑤들에게
불줄기를 뿜으시던 그날처럼
명중탄을 날리시는
수령님의 근엄한 모습이여

총소리 총소리
우리 수령님의 철의 심장에서 벼려진
조선인민군의 총대가 뢰성치는 소리

조선인민군!

이 나라 반만년력사가
환희와 격정속에 맞이한 인민의 무장력
이제 더는 이 땅우에
수난의 세월은 없으리라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무궁토록 지키리라

강도 일제를 타승한 강철의 대오
백두령장의 사열을 받으며
노도치는 무적의 강군앞엔
침략의 성조기를 짓밟으며 들어설
전승의 광장이 마중오고있었나니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위대한 장군의 그 음성
삼천리강토를 뒤흔들며 메아리쳐갔어라
다가오는 세기와 세기들에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봄우뢰로!

(시) 영원한 총성

한 광 춘

방선천리에 파도치는
총대의 숲을 안아볼 때면
오늘도 울려오는 메아리
이 나라 첫 기관단총의 그 총성

해방조선의 첫 기슭에서
우리 정규무력이 력사의 자욱을 내디딘
뜻깊은 그해 12월
우리 수령님 만단사연을 실어 손에 드신 총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내 조국의 기관단총

짓밟혔던 운명을 털어버리고
수호자의 군복을 떨쳐입은 인민의 아들
딸들에게
백두의 넋이 흐르는 총
우리의 총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잡아보시고 다시 쓸어보시고…

한자루의 총을 위해 더운 피를 뿌린
위훈깃든 군기의 펄럭임에서도
그날의 환호성 울려온다
전선천리에 새기시는
령장의 자욱을 따라
승리의 날과 날로 이날은 이어진다

장장 수십성상
전화의 불구름을 헤쳐
력사의 광풍을 쳐갈기며
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영웅의 대오
그 진두에 서계시는 김정은장군

오, 그이는
만리창공을 내닫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떨칠 오늘을 확신하며
그이 터치시는 자주의 총성
자위의 총성

년대와 년대를 넘어
력사의 그 총성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북방천리 전선길만리
우리 장군님 한평생을 다 바쳐 다져주신
불패의 무장력이여

고지와 고지마다
무자비한 타격수단들이 포신을 들었다
혁명군대의 위력
그 사거리는 한계를 모른다
그 힘의 분출은 무한하다

수령님 울리신 그날의 총성은
대지를 박차고 솟구쳐오르는
은빛로케트들의 불뢰성으로 터져오르고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푼
핵폭음으로 우뢰쳤나니

아, 강국의 하늘을 억척같이 떠받든
우리의 무장력
천만의 총대우에
눈덮인 강산을 흔들던 그날의 총성은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로 울리고있어라

(시) 백전백승의 행군로

백 광 철

해와 달이 흘러
예순일곱해
백승의 행군로우에
승리의 분수령으로 솟아 빛나는
2월 8일!

위훈깃든 군기의 펄럭임에서도
그날의 환호성 울려온다
전선천리에 새기시는
령장의 자욱을 따라
승리의 날과 날로 이날은 이어진다

장장 수십성상
전화의 불구름을 헤쳐
력사의 광풍을 쳐갈기며
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영웅의 대오
그 진두에 서계시는 김정은장군

오, 그이는
만리창공을 내닫는
백두의 칼바람을 번개로 거머잡아
침략의 머리우에 불벼락치시는
무적의 령장

척척척
노도치는 근위부대들의 돌격로우에
멸적의 불줄기를 내여뿜는
포연자욱한 훈련장에
붉은 매들이 폭음을 울리며 날으는 활주로우에
울려퍼지는 령장의 발걸음소리

계시여라
병사들의 돌격참호와
전선고지의 최전방지휘소에
화선천리 불비를 헤쳐
미제를 멸망의 나락에 처넣으시던
김일성장군의 그 모습으로
이끄시여라

철령과 오성산
선군혁명전장에
총대의 불폭풍을 휘몰아가시며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불러오신
김정일장군의 그 신념 그 기상으로

4월 25일의 환호성이
조국해방의 만세소리로 터져오르고
2월의 열병광장이
전승의 광장으로 이어졌듯이
걸어온 길도 승리의 한길
걸어갈 길도 백승의 한길

앞으로 앞으로
2월의 열병광장에서
우리 수령님 손들어 가리키시던
최후승리의 광장을 향하여
강철의 대오는 나아간다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따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뜻깊은 2월 8일에 즈음한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소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시이야기 《불멸의 건군업적 만대에 빛나리》, 대화시 《장군님과 전사》, 녀성4중창 《선군닐리리》, 독무 《나의 초소》, 남성4중창 《근위부대자랑가》, 녀성3중창 《아름다운 비행구름》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자주시대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이 땅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무리를 모조리 격멸소탕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멸적의 의지와 기개가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시랑송과 경음악 《결전의 길로》, 북과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등의 종목들에서 세차게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갈 청년전위들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공연은 남성기타5병창과 노래 《승리는 대를 이어》, 《조선청년행진곡》으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공연 진행

뜻깊은 2월 8일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공연이 6일 순천시 리수복청년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순천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공화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위훈을 녀성독창과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대화시 《위대한 선언》 등의 종목들에 담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지켜주시고 태양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되새겨보게 하는 녀성중창 《이 강산 높은 령 험한 길우에》, 시와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이 맥박치는 금관2중주를 위한 경음악 《병사들은 대답했네》, 노래련곡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땅크병의 노래》,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비행사의 노래》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관람자들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안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건설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백승의 전통을 이어갈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공연은 합창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그날은 2월 8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3년간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군사적으로, 정치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였습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이 남긴 신비한 일화들은 얼마나 많은가.

미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던 이 이야기도 그 수많은 일화들중의 하나이다.

전쟁의 세번째 해인 주체41(1952)년초 우리의 후방지역에서 폭격에 미쳐날뛰던 미군비행사 한놈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놈은 미국의 대재벌의 아들이였다. 유력한 배경과 큰 돈줄이 힘이 되였는지 놈들은 각종 군함과 직승기, 전투기들과 《특공대》까지 동원하여 실종된 비행사를 찾기 위해 분주탕을 피웠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로된 적비행사를 역리용하여 미군직승기를 나포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직승기는 미제와 몇몇 동맹국들만이 보유하고있는 최신형비행기였다. 미제는 그러한 직승기를 조선전쟁에 처음으로 실전사용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직승기를 유인나포하기 위한 방안이 세워지고 조선인민군 제8보병사단의 비행기사냥군조가 이 작전에 동원되였다.

며칠후 강원도 통천군의 어느 한 산골짜기에서 적신형직승기를 유인나포하기 위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포로당한 미군비행사놈이 무전기로 구조신호를 날린 때로부터 얼마후 골짜기상공을 뒤덮으며 적기들이 날아왔다.

우리의 미끼를 문 적직승기가 비행사를 구출하기 위해 착륙하는 순간 매복하고있던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직승기조종사와 항법사, 무전수를 포함한 여러명의 적들을 체포하고 직승기를 장악하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적들은 부랴부랴 전투기편대를 들이밀었다.

그러나 유리한 위치에 매복하고있던 우리 비행기사냥군조 전투원들은 맹렬한 화력으로 적비행기 5대를 격추시켰다. 불과 몇시간동안에 이룩한 전과였다.

그날로부터 이틀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로 호송해온 미군직승기를 보아주시면서 놈들이 최신형직승기를 나포당했으니 화가 치밀어 야단일것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 력사에도 생포한 적비행사를 역리용하여 비행기를 나포한 일은 없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날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이룩한 전과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래니 모두 6대를 나포 및 격추하였구만. 보시오. 한전투에서 적기 6대를 나포 또는 격추하였으면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라고 하시며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에 의한 미군직승기의 나포!

이로 하여 《공중우세》를 떠들던 미국놈들은 세계면전에서 또다시 커다란 망신을 당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직승기 《독점》은 끝장나고말았다.

실로 그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무비의 영웅성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였다.

청소한 공화국을 단숨에 집어삼킬듯이 호언장담하며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조선전쟁에 들이밀고 미쳐날뛰던 미제가 쓰디쓴 참패를 당한 그날은 주체41(1952)년 2월 8일이였다. 바로 우리의 조선인민군이 정규적인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때로부터 4년이 되던 뜻깊은 날이였다.

우리 인민군대를 청소한 군대라고 얕잡아보며 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거듭하던 미제는 전쟁 2년만에, 그것도 우리 조선인민군의 뜻깊은 2월 8일에 최신형무장장비를 《선물》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였던것이다.

우리의 정규적혁명무력이 탄생한 뜻깊은 날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이 이룩한 전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였다.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군은 태여난 그 순간부터 세계의 그 어떤 침략무력도 물리칠수 있는 강군이였다.

전쟁의 승리는 결코 군사기술적우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령장의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군인들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60여년전의 뜻깊은 2월 8일의 전과는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승 철 진

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안고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6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초급당비서 전명화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장승호, 직장장 진성호, 로동자 강후남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개벽된 공장을 돌아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질좋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며 직장, 작업반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질좋은 《매봉산》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을 5대교양사업과 함께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며 직장, 작업반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대로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질좋은 《매봉산》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은정이 깃든 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원격교육을 통하여 최신과학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생산의 주인, 기술혁신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자들의 궁전으로 꾸려진 영광의 일터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양하여 문화후생시설들과 야외체육시설 등을 더 잘 관리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자랑찬 성과를 안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1급경기들이 진행된다.

5일부터 시작된 롱구 남, 녀경기가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계속된다.

8일(일요일)에는 9시부터 압록강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사이의 남자롱구경기가, 4.25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사이의 녀자롱구경기가 진행된다.

8일과 10일부터 청춘거리 탁구경기관, 배구경기관에서 탁구, 배구경기가 각각 시작된다.

6일에 시작된 빙상호케이 남, 녀경기가 빙상관에서 다음주에도 계속 진행되며 스키조약(1급, 청년급) 남, 녀경기는 8일부터 삼지연에서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충정안고

‖ 창성군 읍안의 전쟁로병들 ‖

경애하는 원수님,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로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은정을 되새기며 너나없이 두 눈을 슴벅이는데 김종훈동무가 생각깊은 목소리로 말머리를 뗐다.

《우리 창골혁명사적지관리사업을 맡아하는것이 어떻겠소?》

어떻게 하면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적으나마 보답할것인가 하고 생각을 굴리던 전쟁로병들의 가슴은 절로 숭엄해졌다.

창골혁명사적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시기 밤늦도록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탁월한 전략과 전술들을 세우신 사적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신 사적이 깃들어있었다.

그날 김종훈동무를 비롯한 전쟁로병들은 비록 년로한 몸이지만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새세대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조국수호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마음안고 사연깊은 혁명사적지관리사업을 맡아하자고 의논하였다.

포화를 헤치던 그때의 그 정신으로 전쟁로병들이 창골혁명사적지관리사업을 맡아나섰다는 소식은 즉시에 온 창성읍에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여러차례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이전 약수중학교(당시) 교장 량형주로인과 창성읍안의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의 안해들은 저저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의 배려만 받고살아왔는데 어떻게 편안히 앉아있겠는가고 하면서 전쟁로병들과 마음을 합쳐 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눈비내리나 찬바람부나 매일 어김없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창골혁명사적지에 나가 관리사업에 자기들의 지성과 정력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2년 남짓한 기간에 혁명사적지와 그 주변에 분지나무, 찔광이나무,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등 9종에 9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들을 정히 심고 품들여 가꾸었으며 자체로 마당비와 방비, 호미, 눈가래들을 마련하여 혁명사적표식비와 교양마당, 사적도로관리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년 7월 장마비로 산골짜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내리면서 사적지구역에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그들은 억수로 내리는 소낙비에 온몸이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사태가 날수 있는 3개의 위험한 곳들에 억척같이 돌들을 쌓아 사적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하였다.

눈이 많이 내리던 지난해 12월의 그 나날에는 모두가 떨쳐나서 밤을 새워가며 사적지구역의 나무가지들에 쌓인 눈을 털어내여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혁명사적지구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돌 하나를 자기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고 사적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쳐가는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순결하고 변함이 없었다.

윤성기전쟁로병은 2013년 5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안정하면서 휴식할것을 권고하는 안해에게 몸이 아프다고 사적지관리사업에 나가지 않으면 마음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서 사적지에 나가 관리사업에 참가하였다.

지난해 1월에는 고열로 심하게 앓으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혁명사적지관리사업을 매일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훌륭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는데 집에 누워있다 한들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치료가 되겠는가고 하면서 사적지관리사업에 참가하였다.

받아안은 믿음과 은정에 한생 끝까지 충정다해 보답하려는것은 그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혁명사적지관리사업에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친 김시현, 현인옥전쟁로병들을 비롯한 29명 전쟁로병, 로인들 모두가 변함없는 신념과 숭고한 의리심으로 심장을 끓이였던것이다.

그들은 창골혁명사적지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대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는것은 자신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4월 사적지를 참관한 28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해설해주고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었다.

지난 2년간 그들은 80여차에 걸쳐 6 700여명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대성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한생 끝까지 변함없는 충정을 안고 사는 전쟁로병들과 로인들을 보며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정말 쉽지 않은 로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것을 다짐하군 한다.

본사기자 김 치 곤

제15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의장단회의
공 동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해방 70돐,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총진군해나갈것을 결의하며 제15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해내외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2015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총공세의 해, 일대 전환의 해,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것이다.

범민련은 각계각층속에 민족이 우선이고 우리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민족제일의 정신을 심어주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이다.

2.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민족공동의 통일헌장, 통일대강인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자주통일의 생명선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것이다.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며 그것이 명실공히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추동하는 전민족적통일회합으로 되게 만들어나갈것이다.

3.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다.

특히 북남관계개선의 걸림돌인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침해하고 모독하는 비방중상과 《인권》모략소동, 삐라살포와 같은 온갖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5.24조치》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4.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당면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며 외세가 우리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간섭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5.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탄압책동에 강력히 맞서나갈것이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불법단체》, 《리적단체》로 몰아 완전히 말살하려는 강제해산시도를 단호히 저지시켜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권적인 악법들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것이다.

올해의 투쟁목표는 뚜렷하며 온 겨레의 자주통일기세는 충천하다.

우리모두 조국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감으로써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5돐을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2015년 2월 6일 평양, 서울, 도꾜

제15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제15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가 6일 북과 남, 해외사이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범민련의 활동방향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에 맞게 범민련이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범민련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범민련은 해내외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2015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총공세의 해, 일대 전환의 해,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발표 15돐,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민족적통일회합으로 만들어야 한다.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파쑈공안소동에 강력히 맞서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권적인 악법들을 철폐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여야 한다.

범민련은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온 겨레가 선언리행을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전개하며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저해를 주는 비방중상과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침해하고 심히 모독하는 《인권》모략소동, 삐라살포와 같은 온갖 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가야 한다.

범민련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온 겨레를 반전평화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갈것이다.

민족분렬을 강요한 미국의 온갖 죄악과 범죄의 력사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조국의 남측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보고는 결성 25돐을 맞이하는 범민련이 조국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감으로써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헐뜯는자들은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희세의 천출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날로 더욱 과시되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변혁이 일어나는데 질겁한 미국과 괴뢰패당이 최근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고있다.

지난 1월 22일 오바마가 미친개 짖어대듯 《가장 고립되고 가장 단절되고 가장 잔혹한 독재국가》니, 《북은 붕괴될것》이라느니 하는 극악한 망발을 줴친데 이어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정무차관년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저마끔 나서서 《영원히 지속하지 못한다.》느니, 《변화》니 뭐니 하고 지껄여대고있다.

이에 추종하여 괴뢰패당도 보수언론들과 전문가나부랭이들을 내세워 그 무슨 《경직성》이니, 《변화의 필요성》이니 하는 잡소리들을 줴쳐대는가 하면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인민중시》와 같은 우리의 정책과 그 구현인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 우리 군대의 군사훈련에 대하여 《민심동요막기》니, 《군부지지기반강화》니, 《보여주기》니 뭐니 하고 비난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악랄하게 헐뜯고있다.

지어 괴뢰들은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대규모경제투자를 따내여 체제를 유지하려는것》이라고 중상모독하는 황당한 나발까지 불어대면서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날로 높아가는 동경심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차단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며 《북체제붕괴》망상에 사로잡힌자들의 가련한 추태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떠드는 《체제불안》, 《북붕괴론》으로 말하면 이미 그 허황성과 모략적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난것으로서 초보적인 판별력도 없는 대결광신자들의 잠꼬대에 불과하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 적들은 어리석게도 《3, 3, 3 붕괴설》이라는것을 내들고 북이 얼마 가지 못할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흘렀고 현실은 또 어떠한가.

주체의 사회주의로 존엄떨치는 우리 공화국은 《붕괴》는커녕 선군의 기치높이 더욱 무섭게 승승장구하고있다.

인공위성이 련이어 우주로 날아오르고 세기를 뛰여넘는 천지개벽, 사회주의문명이 눈부시게 펼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에 온 세상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천만군민이 자나깨나 령도자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는 우리의 위대한 일심단결, 그것은 자본주의가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고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이다.

현실이 바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패당이 아직도 《붕괴》니, 《변화》니 하는 어리석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이야말로 세기적인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붕괴직전에 이른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다.

지금 미국은 사상 최고의 국가채무와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간, 인종간갈등과 동맹국들사이의 마찰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으며 남조선 역시 괴뢰패당의 파쑈통치와 부패무능, 반인민적악정으로 통치체제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집권자의 지지률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있다.

이러한 주제에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 누구를 《붕괴》시킨다고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그 무슨 《북체제붕괴》라는것이 백년이가도 이루어질수 없는 개꿈이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보수언론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불어대는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체제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면부정하고 그 무슨 《붕괴》를 꿈꾸며 악랄한 대결정책에 매달리는 미국과 괴뢰패당에게 있다.

그러한 도발적망동이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북남사이에 수습할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을 불러올수 있는 도화선으로 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혀바닥을 함부로 놀려대는것이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올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헐뜯는자들은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2월 6일 평양

남조선집권자는 흑백을 전도하는 도발적망발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당국자가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도발적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새해에 들어와 걸으로나마 대화와 평화를 외워대던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날강도 미제의 대조선대결광증이 극도에 이르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도발적망발을 줴쳐댔다.

지난 5일 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에서 열린 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데서 저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우리가 병진로선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싸일개발을 지속하고있다고 걸고들며 《북이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위협을 계속하고있다.》는 가시돋힌 궤변을 늘어놓았다.

특히 《북의 위협》이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있다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헐뜯다 못해 미국 《쏘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공격사건을 우리와 련계시키고 《북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북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결적악담까지 내뱉았다.

결국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조선반도정세가 첨예화되고있는것이 우리때문이라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며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망발이 아닐수 없다.

누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누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있는가 하는것은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아량있는 대화와 협상제안에 외세와의 침략전쟁연습과 상대방을 악랄하게 헐뜯는 망동으로 대답해나섬으로써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장본인이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지금 《대북추가제재》를 선포하고 《북붕괴》악설을 내뱉으며 미쳐날뛰는 미제국주의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에 대한 도발의 도수를 높이고있는것도 바로 괴뢰패당이다.

특히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집권자가 《대화》를 떠들던 그 입으로 대화상대방을 전면부정하고 헐뜯는 망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대결망발을 계속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참화를 면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거듭 경고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언행을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서울지역 각계 인사들
반《정부》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1월 31일 남조선의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1 000여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현 시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였다. 현 《정권》이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세금부담을 들씌워 살아가기 힘들다고 개탄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웨치는 인사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게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고 내란음모사건이 조작되는것과 같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현 집권자는 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의 총체적개입으로 부정당선되였다고 하면서 그의 취임 2년을 계기로 각계각층이 거리에 떨쳐나 《정권》퇴진함성을 높이자고 호소하였다.

반《정부》투쟁을 전지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초불을 들고 청계광장까지 시위를 벌렸다.

대참사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투쟁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각계층이 보수세력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집권세력에 항의하여 유가족들과 각계층이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롱성투쟁에 들어갔다.

집권세력은 할수없이 《새누리당》을 내세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나섰지만 저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발악하던 끝에 11월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채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격분한 유가족들과 각계층은 진상규명이 옳바로 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의지를 안고 롱성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법안통과로 사태가 해결된듯이 떠들며 서울시측에 롱성장을 철거시키도록 추동질하였다.

보수세력의 추동질을 받은 서울시당국은 올해 들어와 1월 26일 롱성장천막을 철수시킬 준비를 갖추라는 공문을 롱성자들에게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31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측을 압박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지금 시민 대다수가 진상규명요구에 공감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내왔지만 진상을 옳바로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참사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롱성장을 지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한편 참사 300일을 앞두고 1월 26일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부터 전라남도 진도의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에 나선 유가족들과 각계층은 행진도중에 보수세력이 특별법제정으로 모든것이 끝난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고 하면서 광화문롱성과 도보행진은 진상규명을 위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자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

남조선의 삼성그룹산하 4개 회사 로동자들이 1월 29일 서울의 삼성그룹청사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삼성그룹이 산하회사 4개를 일방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로동자들이 일제히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1월 21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일방적인 매각철회와 로조인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신뢰》와 《소통》을 운운하던 업주측이 경영파탄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전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에 업주측이 손해배상청구, 징계, 해고협박을 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

실화
전화의 군기는 말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제2계단시기 첫 전시실에는 사연깊은 군기가 전시되여있다.

아직도 총알과 파편에 맞은 자리가 력력히 남아있는 포연스민 그 군기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의 포위를 뚫고 부대의 영예를 빛내인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8련대의 군기이다. 얼마전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뜻밖에도 락동강계선에서부터 최고사령부까지 그 군기를 책임지고 호송해온 주병화의 아들 주성일을 만나게 되였다.

로병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군기에 대한 로병의 추억은 자식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살아있었다. 생전에 주병화전쟁로병은 군기를 함께 호송해온 잊지 못할 전우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며 헤쳐넘은 무수한 령들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에게 늘 이야기해주었던것이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학술연구부에 기록된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8련대의 군기호송로정과 더불어 새겨진 빛나는 위훈을 뜨겁게 더듬어보며 주병화전쟁로병의 아들과 마주앉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를 상징하는데서 기본은 군기입니다.》

사연깊은 그 군기에 대한 이야기는 수암산의 불타는 격전장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적아간 한치땅을 두고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치렬한 싸움을 벌리던 1950년 9월 어느날 운수중대 문화부중대장이였던 주병화는 련대장인 항일혁명투사 김증동에게서 뜻밖의 임무를 받았다.

련대군기를 최고사령부까지 안전하게 호송할것!

그날 새벽 락동강을 헤염쳐건너 적후에 남아있던 군기소대군인들을 인솔한 그는 밤새워 김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맞아준것은 담벽에 써놓은 《대전으로→》라는 네글자뿐이였다. 크나큰 기대를 안고 숨가삐 달려간 대전도 텅 비여있었다. 발밑으로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삐라가 락엽구을듯 하고 머리우로 맴도는 적직승기에서는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지껄임소리가 그칠새없이 흘러나왔다.

후퇴는 군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겨운 시련인가. 더우기 그들은 련대군기의 운명을 걸머지고 단독결심, 단독행동으로 총검의 숲을 헤쳐나가야 하였다. 주병화의 귀전에 련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메아리쳐왔다.

《련대는 못 가도 군기만은 기어이 최고사령부에 가닿아야 하오.》

대오는 말없이 북으로 향했다. 얼마후에는 군기를 호송하는 그들을 따라 소속도 병종도 서로 다른 70여명의 군인들이 합류하였다. 그들중 그 군기앞에서 군인선서를 한 군인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적후에서 그 군기는 제3보병사단 8련대의 전투적상징이기 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을 찾아가는 그들모두에게 목숨바쳐 지켜야 할 나의 군기, 신념의 군기였다.

하기에 가다 숨지는 한이 있어도 최고사령부를 찾아가겠다며 부상병들도 따라나섰다. 고향을 지척에 둔 의용군병사들도 군기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련대와 헤여진지도 어느덧 한달도 퍼그나 지나 태백산줄기마다에는 마가을 찬비가 사정없이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극도의 피곤속에 몰려드는 추위와 굶주림, 엄청나게 모자라는 탄약…

익측도 후방도 없는 적후에서 한줌의 쌀, 한걸음의 전진을 위해 죽음을 자기 집문턱인듯 넘나든 아슬아슬한 사선의 고비는 그 얼마였던가.

모진 시련과 겹쳐드는 고난으로 마음이 힘겨워질 때마다 그는 가슴속깊은 곳에 간직한 **김일성**종합대학 대학생모표를 소중히 쓸어보군 하였다.

아이보개로, 소년광부로, 일본놈들의 징병에 끌려 대포밥신세를 면할수 없었던 그 시절 그는 세상의 불행을 다 타고난 천덕꾸러기였다. 그 천덕꾸러기를 옥토의 주인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신분은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바로 그이께서 안겨주신 군기였다.

이 땅의 귀중한 모든것을 목숨바쳐 지켜야 할 사명을 지닌 군인에게 있어서 한생을 다해 가장 고귀하게 지키고 빛내여야 하는것은 다름아닌 수령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군기를 호송하여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군인들의 드높은 각오는 엄격한 군사규정과 강철같은 군사규률속에서 군기와 운명을 함께 한다는 남다른 영예감과 자부심으로 한껏 증대되였다. 대오의 복장은 비록 람루하였지만 대오의 정신과 기상은 여느때없는 활력과 락관에 넘쳐있었다.

태백산줄기를 따라 행군길을 다그치던 어느날 밤 대오는 적들의 사면포위에 들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칠듯 다가오고있었다. 대오는 판가리결전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주병화의 담담한 목소리가 대오에 울려퍼졌다.

《군기소대를 제외한 전원은 날 따라 앞으로, 군기소대는 그 뒤로!》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결전을 앞두고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탄알을 뽑아 넘겨주는 전우들의 손과 손을 굳게 맞잡은 군기호위병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뻐근해졌다. 부상을 입은 두 대원이 보병삽을 들고 적진에로 육박해나가며 웨쳤다.

《개무리들이 우리에게 몰려들면 그때 거기에 수류탄을 던지라!—》

그와 때를 같이하여 특무장사 서춘홍이 군기를 부탁한다는 말한마디를 남기고 적진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가 던진 수류탄이 적의 무리속에서 련달아 터질 때 주병화는 돌격구령을 내렸다. 거인같은 힘으로 무자비한 죽음을 주는 인민군전사들의 용맹앞에 전률한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할 때 군기수를 성큼 한걸음 앞으로 내디디였다.

백병전이 끝난 격전장에서 전사들은 원쑤의 몸에 총창을 박은채로 쓰러진 서춘홍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의 몸에서 하염없이 뿜어져나오는 더운 피는 흰눈을 붉게붉게 물들이고있었다. 마지막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그의 눈길이 군기를 넣은 배낭에로 힘겹게 가닿았다. 전우들이 서둘러 그에게 군기배낭을 안겨주었다. 피젖은 심장에 군기배낭을 꼭 품은 그의 눈은 조용히 웃고있었다. 그렇게 그는 군기와 영결했다.

그의 붉은 피로 더 붉어진 군기를 안고 대오는 눈덮인 태백의 준령에 맹세의 자욱을 찍어갔다. 그 길은 련대를 지키는 길이였고 조선인민군의 명예와 존엄을 사수하는 길이였다. 공화국은 영원히 끄떡없음을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철리로 새겨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높이 이어간 신념의 길이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절해고도에서도 변함없을 병사의 의리와 량심을 검증받는 길이였다.

그해따라 태백산줄기엔 눈이 많이도 내렸다.

사나운 추위를 맞받아 피나무껍질로 동여맨 발을 옮길 때마다 흰눈우에는 전사들의 터갈라진 발에서 슴배여나온 피자욱이 점점이 찍혀졌다. 가혹한 굶주림을 이겨내며 소금맛을 잊고 행군해온지도 벌써 스무날째였다.

하지만 첩첩히 막아서는 고생과 시련은 더욱더 뜨거운 전우애를 낳게 하였으며 대오의 마음을 더 큰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다. 전투원들은 도토리 한줌, 칡뿌리 한토막이 생겨도 군기소대전투원들의 손에 쥐여주었고 깨진 장독을 우려낸 쩝쩔한 물도 그들에게 먼저 권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간고한 행군끝에 적후전선의 전우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였다. 미더운 눈길로 군기소대전투원들을 일일이 바라보던 적후부대장 최현은 대오를 책임진 군관 주병화에게 절절히 당부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을 기다리고계시오. 한시도 지체말고 최고사령부로 떠나시오.》

적후전선전우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그들은 또다시 준엄한 적후의 길을 이어가게 되였다.

락동강계선을 떠난 때로부터 76일이 되던 12월초 어느날, 마침내 군기소대전투원들은 적후 3천여리를 헤쳐 최고사령부로 군기와 함께 들어섰다.

땀에, 눈물에, 피에 절은 군기를 부둥켜안고 군기소대전투원들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잊을수 없는 전우들의 자욱자욱이 태백산준령의 흰눈길우에 또렷이 새겨져있었다. 함께 왔어야 할 전우들이,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그들이 군기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있었다. 그들은 군기로 날아드는 총탄을 몸으로 막았다. 군기를 지켜 부상당한 몸으로 백병전에 뛰여들었고 군기를 위해 청춘도 아낌없이 바쳐 적후의 이름없는 산언덕 찬눈밑에 묻혔다.

과연 그 무엇이 마음속에 간직되여있어 군기소대전투원들은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최고사령부를 찾아 달려왔던가.

적후 3천여리, 그 험난한 길에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였다. 군기를 지키는것은 곧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는 조선인민군 병사의 영광이였고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영생하는 길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감격의 순간을 기다리는 군기소대전투원들의 가슴속에는 장중한 군악소리와 더불어 꿈속에서도 듣고싶던 구령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쳐오고있었다.

《련대 차렷, 군기에 가운데로 들어—총》

* *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위훈을 잊지 않으시고 조선예술영화 《군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도록 해주시고 전승 40돐을 맞으며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군기소대전투원들의 상봉모임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되여있는 하나하나의 군기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아보았다. 전승사의 갈피갈피에 혁혁한 위훈을 남긴 근위부대들의 군기가 전승세대들의 기념비처럼 우렷이 안겨왔다. 그와 더불어 일편단심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라 조선인민군 전사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인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8련대의 군기도 뜨겁게 마음속에서 펄럭이였다. 그것은 우리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전세대들의 당부를 깊이 심어준 신념의 군기였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을 정중히 모신 《승리》상앞에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다시한번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전승기념탑엔 당기와 함께 군기도 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미국의 몰락을 촉진할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험담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그는 조선이 많은 군대와 핵기술, 미싸일을 보유하고있기때문에 고립압살하는데서 저들의 선택범위가 좁아지고있다고 푸념을 하면서 인터네트에 기대를 걸고 우리를 어째보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바마의 말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한 패자의 넉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에는 미국의 군사적공세도, 인터네트를 통한 침투책동도 맥을 추지 못한다. 오늘 세계는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길로 보고있다.

시대감각이 무디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청맹과니들만이 엄연한 현실도 바로 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임기 2년밖에 남지 않은 오바마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실패를 어리석은 넉두리로 합리화해보려는것 같은데 이제라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재선된 대통령들이 두번째 임기의 마지막시기에 인기가 저락되고 정치적타격을 받기가 일쑤이기때문에 《절름발이오리》로 불리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에 패하여 오바마행정부는 《절름발이오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앉은뱅이오리》신세가 되였다.

실패한 《전략적인내》정책을 유산으로 남기겠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대담하게 대조선정책전환을 하겠는가? 현 미행정부앞에는 이러한 물음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미국집권자들에게 침략적인 대외정책 특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한두번만 충고하지 않았다.

랭전종식후에만 보자.

랭전의 종식은 곧 힘의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힘의 만능론과 결별할 때가 되였다는 경종을 울려주었다.

자주화의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 정치는 오래갈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정치인들이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수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랭전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세계제패를 위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면서 조미관계에서도 지난날의 적대관계를 버리지 못하였다. 오히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였다. 특히 새 세기에 집권한 부쉬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헐뜯으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 무슨 대조선정책의 《전면적인 검토》니, 《강경대응》이니 뭐니 하면서 제재와 압박공세의 도수를 부쩍 높이였다. 그들은 《인권문제》요, 《종교문제》요, 《마약사건》이요 뭐요 하는따위의 별의별 허튼 문제들을 꺼들며 계속 우리를 걸고들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이 저들의 《포함외교》, 공포전략에 겁을 먹고 양보와 항복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부쉬일당이 악랄하게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 굴복시켜보려고 최후발악을 다하였지만 그들의 책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한것자체가 큰 오산이였다.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정치군사적압력과 위협, 봉쇄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세상사람들이 보란듯이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 종합체라고 하는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데 이어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위성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이 오래동안 강행해온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남잡이가 제잡이가 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둔한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국집권자들은 구태의연하게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렸다.

집권초기 대조선정책에서 그 무슨 변화라도 가져올것처럼 너스레를 떨던 오바마는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오바마정권의 대조선정책이 얼마나 극악한가 하는것은 우리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국제적압박의 방법으로 빼앗아내려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전략적인내》정책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를 가로막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를 굳건히 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오바마정권이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강탈하려고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간 상황에서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법화하였다.

《전략적인내》정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으며 실패만을 거듭하자 오바마패당은 좌절감에 빠져들어 전전긍긍하고있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은 미국의 쇠퇴몰락을 촉진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털어놓고말하여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넘겨다볼 처지에 있지 못하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힘을 독점한것처럼 자처하면서 힘의 정책에 의거하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질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반항에 부딪치고있다.

미국의 쇠퇴몰락은 정치, 경제, 군사의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있다. 우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초대국》행세가 통하지 않고있다. 미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무시하고 독단을 부려 동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있다. 미국은 동맹국정부수반들의 손전화까지 불법도청한것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렬한 렴탐행위를 감행하여 국제적으로 몰리우고있다. 미국의 집요한 패권주의야망실현책동은 적수들만 많이 만들어놓았다.

미국이 세계제패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있는 군사력도 무너져가는 아메리카제국을 받쳐주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하지만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기둥의 하나인 딸라의 지위가 허물어지기 시작함으로써 국제금융부문에서 세계최대의 금융기관들을 가지고있다고 뽐내던 미국의 지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국제적으로 미국딸라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는것과 동시에 무분별한 군사비지출은 미국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있다. 막대한 군사비지출로 하여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의 빚을 걸머지고있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군비를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최대채무국이 언제까지 강대국으로 남아있을수 있는가.》,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는 길로 떠민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 정세분석가들속에서 련이어 울려나오고있다. 아메리카제국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목소리는 자국내에서도 터져나오고있다. 몇년전에 미국의 지정학전문가이며 랭전종식후 미국의 일극세계지배론의 주요제창자, 패권주의설교자인 브레진스키가 자국의 패권이 끝장났다고 주장하여 세상을 들썩하게 하였다.

아메리카제국이 종말을 고하고있다는것은 더이상 론할 필요도 없다.

침략전쟁과 군사적압력, 내정간섭, 경제제재 등은 미국의 패권구도를 종말에로 이끌어간 근본요인이다.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라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는 전인민적이며 전군적인 공용어로 된지 오래다. 날강도 미제와 반드시 결판을 낼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오와 기상은 하늘을 찌를듯 하다.

미국은 침략의 무리에게 죽음을 주자는 반미보복열기가 죄악의 총본산인 미국땅 한복판을 향해 폭풍쳐가고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이 제 처지도 모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쇠퇴몰락은 더욱 촉진되게 될것이다.

리 현 도

평화보장과 자주권수호의 근본담보

◇ 오늘의 국제정세는 참으로 복잡하다. 미제의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약육강식의 질서가 횡행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힘이 약하거나 미제에게 환상을 가지면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진 미제는 저들의 세계지배질서수립에 방해로 된다고 인정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마음먹은대로 군사적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랭전종식후 일어난 페르샤만전쟁, 《인권》소동에 뒤이어 감행된 유고슬라비아전쟁, 새 세기에 《반테로》의 구실밑에 빚어낸 아프가니스탄의 비극과 이라크의 비참한 현실, 리비아사태 등은 군사적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다 악랄해지고 로골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노예의 비참한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

◇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것이 총대이다. 총대가 흔들리면 모든것이 끝장난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자주권과 존엄이 있다. 국제정세가 변하고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고 하여 동요하고 주저하며 총대를 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총대를 버리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인민의 운명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국방력강화에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인민의 행복, 평화보장의 근본담보가 있다. 하기에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라고 한다. 나라의 국방력, 총대가 강하면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투쟁력사가 증명하여주고있다.

일찌기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히시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총대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선군사상과 비범한 선군혁명령도로 현대수정주의자들과 반사회주의자들, 투항변절자들의 책동을 짓뭉개버리시며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풍파를 헤치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랭전의 종식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화로 더욱더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시였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수십년간에 걸치는 미제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그 어떤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여왔기때문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선군이라는 필승의 무기가 있었기에 조선이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여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한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해나갈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미제와의 첨예한 대결과 항시적인 핵전쟁위험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보다 로골적으로 강도높게 감행되고있다.

나라의 자주권은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국방력,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현실은 우리가 있을수 있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의 총대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총대를 강화하는것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지킬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쟁억제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것이다.

조선이 미국에 종국적멸망을 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날강도 미제는 기필코 종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것이다》를 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핵전쟁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모든 형태의 전쟁에 준비되여있다고 선언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성명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강력히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공화국의 사상을 말살하고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발악하는 미국과 더는 마주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국방위원회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조선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싸이버전수단들이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독특한 전법에 의하여 적용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성명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까밝혔다.

이 나라의 인떼르팍스통신, 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에호 모스크비방송, 엔떼웨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발뜨인포 등 출판보도물들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조선 미국과의 협상을 배격, 종국적멸망을 경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더는 상종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서 종국적멸망이 미국을 기다리고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날강도 미제가 우리의 사상을 말살하고 우리의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발악하는 한 미국것들과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결단이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가장 참혹한 종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악몽의 시각이 다가온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프레스TV방송, 신문 《이란 데일리》, 싱가포르의 TV《아시아소식통로》,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에짚트의 사다 엘 발라드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인터네트홈페지 《야후》도 《조선 미국과의 대화를 배격》, 《조선 미국에 최종멸망을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보도하였다.

제2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진행

제24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1월 30일과 31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고 대륙의 평화와 안전,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현재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 고속철도망부설,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 공업화 등 경제발전계획실현을 다그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회의끝에 아프리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2063년 전망 및 행동계획이 채택되였다.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아프리카동맹 새 의장으로 되였다.

팔레스티나에서 반이스라엘시위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의 동부지역에서 1일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팔레스티나기발을 흔들면서 가자지대에 대한 부당한 봉쇄조치를 끝장낼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시위

경영형편 악화

미국의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에서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2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원유가격의 파동 등의 후과로 1월에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보다 1.6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오스트랄리아의 동부지역에서 1일 자동차가 달리던 도중 방향을 잃고 길옆의 나무를 들이받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1월 31일 일본 가가와현의 다까마쯔에서 자동차충돌사고로 5명이 사망하였다.

한편 에스빠냐에서는 1월에 각종 교통사고로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세계레스링련합 선수복, 심판원복형태와 깔개색 변경

세계레스링련합이 최근 선수복과 심판원복의 형태를 수정하고 깔개색갈을 바꿀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던 심판원들은 반소매샤쯔와 바지를 착용하게 되며 선수복은 여러가지 색갈을 띠게 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1972년 뮨헨올림픽경기대회때 처음으로 도입된 노란색과 붉은색의 전통적인 깔개색갈은 검푸른색과 오렌지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쎄르지오 마따렐라 이딸리아대통령으로 취임

이딸리아에서 쎄르지오 마따렐라가 3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배격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라울 까스뜨로가 1월 28일 꼬스따리까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 꾸바를 방문한 미국무성 차관보 로버타 제이코브슨이 꾸바의 반대파인물들과 만난것과 관련하여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목적은 경제와 정치, 통신수단들을 통하여 정치적반대파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자기 나라는 미국의 그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반꾸바봉쇄조치를 완화할것을 미국집권자에게 촉구하였다.

평화적핵동력을 발전시킬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평화적핵동력을 계속 발전시킬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란의 핵활동은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정부는 앞으로도 핵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란에 새로운 제재와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무의미하며 그것은 량측에 손해를 주는 적대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유럽의 절대적인 악으로 혹평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쎄르게이 나리슈낀이 최근 유럽리사회의회 회의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유럽의 절대적인 악으로 혹평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표현되고있는 《특수성》에 대한 집요한 인식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역겹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한 인종만이 우월하다는 구상의 작성자들이 생각난다고 야유조소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유럽에 있어서 절대적인 악으로 된다고 하면서 유럽이 미국의 독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그의 안정과 안전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

국산제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1월 31일 동부 오리싸주앞바다에 있는 종합시험장에서 자체로 개발한 《아그니-5》대륙간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5 000㎞인 탄도미싸일에는 1 000㎏의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다 한다.

협조

알제리와 베닌이 3일 테로반대투쟁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최근 먄마와 타이는 먄마에서의 특별경제지대개발사업을 다그치는데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화물수송량 증대

이란에서 올해 3월 20일에 끝나는 현 이란년도의 첫 10개월동안에 이 나라를 경유하여 수송된 화물량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5% 증대되였다.

3일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밝혔다.

경제장성전망

보쯔와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이 4.9% 장성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무역, 봉사, 은행 등 분야에 더 큰 관심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

2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금생산

짐바브웨에서 지난해 13.9t의 금을 생산하였다.

올해 금생산량은 15t이상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1월 25일 이 나라 신문 《썬데이 메일》이 전하였다.

인플레률 감소

케니아에서 1월에 인플레률이 지난해 12월의 6.02%로부터 5.53%로 감소되였다.

1월 30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마약압수

마로끄의 반마약당국이 1월 24일 라라체항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24t의 카나비스가 압수되고 11명의 마약관련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2일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인 청년실업자수가 7 300만명에 달하고있다.

이슬란드에서 화산분출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 (5)

조선반도의 영구분렬을 노린 악랄한 책동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남관계에서는 긍정적움직임이 나타났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분렬된지 27년만에 북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였으며 그것이 고위급정치회담으로 발전하고 1972년 7월 4일에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북과 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하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쌍방은 또한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잇고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북남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남대표들로 구성되는 북남조절위원회를 운영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것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7.4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맞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의거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큰걸음을 내디딜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앞에서는 그것을 환영하는척 하였으나 뒤에서는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렸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해야 한다는 음흉한 침략정책인 《닉슨주의》를 이미 선포한 미국은 《두개 조선》조작을 위해 《현실인정》에 기초한 《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승인》론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저들의 하수인인 박정희역도를 부추겨 7.4공동성명을 전면부정하고 《유엔동시가입》안을 골자로 하는 《6.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내놓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은 이 안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북과 남의 《호상신뢰를 축성》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열이 올라 광고하였다.

이것은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합으로 통일을 지향하여나갈데 대해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짓밟고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을 감싸며 조선반도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기 위한 음흉한 술책에 따른것이였다.

미국의 《두개 조선》정책은 포드행정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졌다. 그것은 포드행정부가 고안해낸 《교차승인》론이란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거기에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었다.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키신저는 1975년에 있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조선과 그의 동맹국들》이 남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미국도 《호상 류사한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포드도 같은해 12월에 발표한 《신태평양주의》에서 조선문제해결의 《건설적인 방도》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조선민족의 영구분렬을 노린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진의도를 드러내놓았다.

1977년 6월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밴스는 《아시아협회》에서 쏘련, 중국, 미국, 일본이 호상성에 기초하여 조선문제를 대하는것이 미국의 방침이라고 떠벌이였다.

미국은 《교차승인》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큰 나라들에 의한 《국제적조정》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며 또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 여론을 내돌렸다.

당시 미국이 제창한 궤변들에는 7.4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고 조선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략적인 기도가 깔려있었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의 통일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으며 영구분렬의 위험성이 더욱 짙어가게 되였다.

한편 미국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에 매달렸다.

1976년 한해동안에만도 정초부터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남조선 거제도 남쪽해상에서 남조선군과 함께 대규모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렸으며 3월 5일에는 《지상목표》를 《초토화》하는 합동훈련을, 3월 8일부터 18일까지의 사이에 군사분계선가까이의 남조선 강릉에서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기습공격》을 가상한 《황룡작전》이라는 기동훈련을 벌렸다.

3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포항앞바다에서 오끼나와주둔 미제3해병사단병력 약 1 400명을 비롯한 미제7함대무력과 남조선해군이 《한미해군공동수륙기동훈련》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이전의 합동군사연습들에 동원된 병력수와 무장장비, 훈련기간에 비해 모든것이 사상 최대규모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1976년부터 매해 벌어진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떠돌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1970년대에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은 미제의 범죄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김 수 진

ㄱ-51021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